

〈구운몽〉 원본 탐색의 가능성 고찰

김동욱*

1. 머리말
2. 연구사 및 연구방법
3. 필사자의 의도적 개작
4. A·B 두 계열 이본의 비교
 - 4.1. 서사적 맥락
 - 4.2. <삼장시>
5. 맺음말

1. 머리말

지금까지 <구운몽>의 텍스트 연구는 다음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목표였다. <구운몽>의 저작 언어는 한글인가, 한문인가? 그리고 <구운몽>의 현존하는 이본 중에서 서포의 원본에 가까운 이본은 무엇인가?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연구자들의 노력이 이어졌다. 특히 수십 년간 <구운몽> 텍스트 연구에 매진하여 <구운몽>의 이본들을 정리하고, 노존 A본을 재구성해낸 정규복의 열정은 후속 연구자에게 귀감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선학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십 년 전에 제기되었던 위의 두 물음에 대한 논쟁은 좀처럼 끝이 나지 않고 있다. 2001년과 2007년에 선행연구와 다른 주장을 편 논문 두 편이 또 제출되었으므로, 지금과 같은 상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조동일은 일찍이 <구운몽>의 주제에 대해 논하면서, “주제 파악의 방법에 무관심하면서 주제를 바로 알아낼 수 없는 것만은 확실하다.”¹⁾고 한 바 있다. 같은 지적이 텍스트 연구에도 해당된다. 즉

텍스트 연구의 방법에 무관심하면서 텍스트 연구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할 수 없는 것만은 확실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 <구운몽> 텍스트 연구에 필요한 방법론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고는 과연 ‘<구운몽>의 이본 중 어떤 이본이 원본에 가까운지 판정할 수 있는가?’하는 보다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이에 답해보고자 한다.

2. 연구사 및 연구방법

<구운몽>은 국문 필사본과 국문 목판본(경판, 완판), 한문 필사본과 한문 목판본(乙巳本, 癸亥本)이 모두 존재한다. 이 중에서 연도가 비교적 앞서면서도 확실한 것은 한문 목판본인 <乙巳本> 1725년(영조 원년)과 <癸亥本> 1803년(순조 3)이고, 연대표기는 없지만 비교적 연대가 앞서는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소장 국문본(이하 ‘서울대본’)이 있다.

정규복은 <구운몽> 을사본이 노존본 계열의 이본들을 모본으로 하여 판각되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을사본의 모본에 노존본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을사본의 1회 장제목이 ‘蓮花峯大開法宇’로 시작되는 반면, 노존본은 ‘老尊師南岳講妙法’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구운몽> 이본의 계통은 ‘노존본(乙巳本의 母本) → 乙巳本(1725) → 癸亥本(1803)’으로 정리되었고, 서울대본은 ‘노존본의 國譯’ 이본이 되었다. 정규복은 노존본 계열의 여러 필사본들을 교감하여 온전한 형태의 노존본을 재구하고, <구운몽>의 원본은 한문으로 지어졌다고 주장했다. 정규복의 재구 작업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것은 1977년의 일이다.²⁾

그런데 1988년, 한문 필사본 <구운몽>(姜銓燮 소장) 이본 한 편이 학계에 새로 소개되었다. 이 이본 역시 1회의 장회제목이 ‘老尊師’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정규복은 이전의 노존본을 노존A본(이하 A본)이라 하고, 강전섭 소장 노존본은 노존B본(이하 B본)이라고 명명했다.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1) 조동일, 『구운몽과 금강경, 무엇이 문제인가』, 『김만중연구』, 새문사, 1983.

2) 정규복, 『구운몽원전의 연구』, 일지사, 1977.

정규복은 B본이 A본에 선행하는 것으로 보고 이본의 계통을 다음과 같이 수정했으며, 한문본인 B본이 <구운몽>의 원본에 가장 가깝다고 보았다. <구운몽> 한문원본설과 이본의 계통에 대한 입장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

B본 → A본(乙巳本の 母本) → 乙巳本(1725) → 癸亥本(18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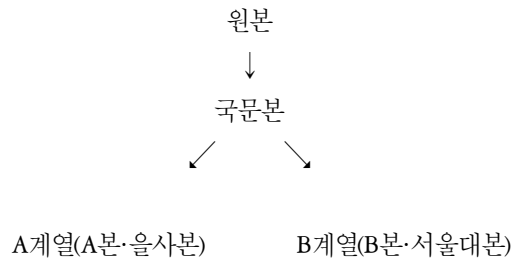


서울대본(B본의 國譯)

1992년, 다니엘 부셰(Daniel Bouchez)는 A본과 B본을 비교해 본 결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³⁾ 삽입 시문과 장회 제목 등 여러 부분을 비교해 본 결과 두 이본의 표기가 同音異議語로 되어있는 경우가 수차례 나타났던 것이다.

가령 양소유의 출생지인 ‘수주’는 B본에 ‘壽州’로 나오는데, A계열에는 이것이 ‘秀州’로 되어 있는 식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A본 필사자의 눈앞에 한문으로 된 B본이 있었더라면, 문체는 바꾸더라도 고유명사는 두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A본의 고유명사 및 장회 제목, 삽입 시문 중에서는 B본과 同音異議로 다른 글자가 제법 있다.

부셰는 두 이본의 사이에 국문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추정했다. 요컨대 A계열(노준A본과 을사본에 속하는 이본군)과 B계열(노준B본과 서울대본)의 텍스트는 어떠한 국문본을 모본으로 각기 다른 필사자에 의해 한역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알기 쉽게 도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다니엘 부셰, 「구운몽 저작언어 변증」, 『한국학보』 18 No.3,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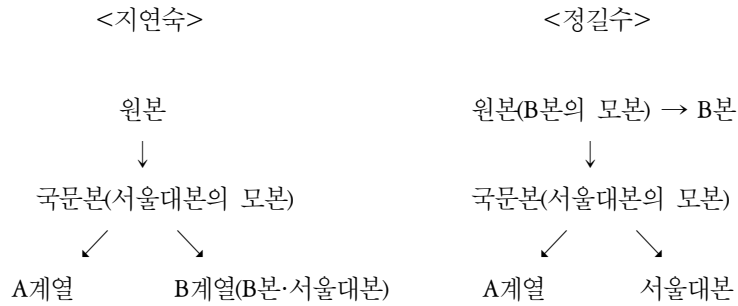
단 부셰는 A·B 두 계열 중에서 어느 쪽이 선행하는지는 알 수 없으며, <구운몽>의 저작 언어에 대해서도 국문일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정규복은 다니엘 부셰의 논문에 대해 바로 다음호에서 ‘A본과 B본의 처음과 끝 부분은 원문이 100%에 가깝게 일치한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⁴⁾ 만일 국역본을 매개로 서로 다른 필사자가 A계열 이본과 B계열 이본을 한역했다면, 두 이본의 한문 문장은 의미가 일치할 수는 있지만 글자까지 일치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 지연숙의 논문에서 ‘낙장으로 인한 첨가’라는 설이 제시된다.⁵⁾

부셰의 논문은 <구운몽> 연구에 있어서 처음으로 본격적인 원문 비평의 방법론이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하다. 부셰는 정규복의 반론에 대해 원문 비평의 방법론을 중심으로 답을 대신했는데,⁶⁾ 반론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아니었으나 어쨌든 <구운몽> 텍스트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실마리를 제시했다고 생각된다. 특히 ‘원문(또는 정본)을 먼저 찾은 다음 다른 이본들과 대비’하는 방식의 텍스트 연구는 현실적으로 바라기 어렵다는 지적은 귀담아 들을 만하다. 요컨대 지금까지의 문헌학(philologie) 연구에서 개발된 방법들을 통해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구운몽> 텍스트 연구를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진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지적이었다.

이후 2001년과 2007년, 지연숙과 정길수⁷⁾의 후속 논문이 제출되었다. 이 두 연구는 모두 A·B 두 계열이 국문본을 매개로 각자 필사되었다는 부셰의 학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A·B 두 계열 중 B계열이 서포의 원본 계열이라는 점을 새롭게 주장한 점이 다르다. 그리고 B계열 중에서 원본에 가까운 쪽이 서울대본이나 B본이나의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린 상태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두 연구의 관점을 도식으로 그려보면 아래와 같다.

4) 정규복, 「다니엘 부셰의 <구운몽> 저작언어 변증」 비판, 『한국학보』 18 No.4, 1992.
 5) 지연숙, 「<구운몽>의 텍스트」, 『장편소설과 여와전』, 보고사, 2003. 요지는 오랜 세월을 거쳐면서 B본의 앞장과 뒷장이 떨어져 나갔고, 이를 나중에 누군가가 A계열의 이본을 참고하여 채워 넣었다는 것이다. 다만 정규복은 ‘낙장’ 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6) 다니엘 부셰, 「원문 비평의 방법론에 관한 小考」, 『동방학지』 95, 1997.
 7) 정길수, 「<구운몽> 원본의 탐색」, 『고소설연구』 23, 2007.



이 두 논문을 통해 <구운몽>의 이본에 대한 많은 사실들이 추가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두 연구는 부세의 논문에서 제기되었던 본질적 문제, 즉 텍스트 연구의 방법론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보다는 연구의 방향이 자구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지엽적인 쪽으로 심화되면서, <구운몽>에 웬만큼 관심이 있는 연구자가 아니면 설불리 끼어들기조차 힘들 정도로 논의가 복잡해진 것 같다.

본고에서는 선행 연구의 논의에 끼어들기 전에 우선 텍스트 연구의 방법론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특히 <구운몽>과 같이 원본이 유실되고 저작 언어도 불명인 경우, 원본의 내용을 저자의 최초 필사본에 가깝게 재구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존재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방법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3. 소설 작품 원본 재구의 난점

일찍이 부세는 A계열과 B계열 중 어느 쪽이 시간적으로 선후인지도 알 수 없다고 했고, 어느 쪽이 원본 계열이라는 판단도 내리지 않았다. 다만 A·B 두 계열의 한문본 사이에는 미상의 국문본이 매개되어 있다는 사실만 지적했을 뿐이다.

그러나 과연 부세의 주장을 선뜻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일까? 부세는 A와 B 계열 이본에 동음이의어가 존재한다는 근거를 들어 두 이본 사이에 미상

의 국문본이 존재했다고 추정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필사자가 원본을 의도적으로 개작할 가능성을 배제했을 때의 이야기이다.

부세의 선행연구에서는 聖書 寫本學의 방법을 참고해 <구운몽> 원본 탐색의 가능성을 모색한 바 있다. 성서 사본학이 <구운몽>처럼 원본이 유실된 작품을 대상으로 원래의 내용을 복구하는 연구의 대표적인 사례인 것은 맞다. 성서 사본들은 인쇄술이 없던 시절 필사자에 의해 손으로 일일이 필사, 번역되었으며, 로마 황제들의 박해와 이슬람교도들의 침입을 견디며 전수되어 왔다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전수된 사본들은 수백 년간 헌신적인 사본학자들에 의해 조금씩 복원되어 왔다. 성서 사본학에서 축적된 여러 가지 기술들은 혹 <구운몽> 원본의 복원에도 일말의 도움을 줄 지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성서 사본학의 방법론이 소설 연구에 무조건적으로 적용되어도 괜찮은 것일까. 성서를 베끼는 작업과 소설을 베끼는 작업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연구방법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만일 필사자가 성서와 같은 종교 서적을 필사한다면, 부세의 논의는 유효하다. 필사자는 원문을 의도적으로 개작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본에 존재하는 모든 변이는 실수나 착오와 같이 비자발적인 행위의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 <구운몽>을 예로 들어 말하자면 B본의 ‘壽州’가 필사자의 의도적 개작에 의해 A본의 ‘秀州’로 바뀌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를 전제해야만 앞에서 말한 부세의 ‘A·B 두 계열의 국문본 매개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소설 작품의 경우에는 필사자의 의도적 개작 내지는 변경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소설 작품을 읽은 필사자가 자신의 구미에 맞게 내용을 바꾸어 필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壽州’라고 되어 있는 것을 필사자가 어떠한 이유에서, 또는 아무런 이유 없이 ‘壽州’로 바꿀 수 있고, 그 반대로 바꿀 수도 있다. 소설 필사에서는 표기의 옳고 그름이 절대적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요컨대 필사자의 개인적 의도에 의한 개작의 가능성을 완벽하게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소설 작품이 경전과 다르기 때문이다. 즉 소설의 내용은 필사 과정에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며, 단지 귀

참거나 기분 탓에 어떠한 글자의 표기를 바꾸어 적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구운몽> 역시 필사자의 개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필사자에 의한 개작의 경우를 가정하면, 반드시 A·B 두 계열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A본을 읽은 필사자가 이를 개작하기 시작, 몇 차례의 변이와 축소의 과정을 거쳐 B본이 나올 수 있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요컨대 <구운몽>과 같은 소설 작품을 대상으로 표기의 正誤나 서사 문맥의 정합성 등을 정밀히 따져 이본의 선후 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신뢰할 만한가 하는 의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다.

소설 작품은 필사자에 의한 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설 장르에 속하는 <구운몽>의 여러 이본을 가지고 표기의 정합성이나 문학적 고하를 따져서 어느 것이 원본에 가까운지를 따지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작업이다. 무수히 많은 필사자의 개인적 취향에 의한 개작으로 인해, 여러 이본에 존재하는 글자의 正誤나 서사 문맥의 정합성 등을 따지는 재구 작업은 완전히 무의미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구운몽>의 경우 현존하는 이본 중 어느 이본이 원본에 가장 가깝다고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유효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구운몽> 이본 연구에 있어서 본고가 내릴 수 있는 첫 번째 결론이다.

그러나 본고가 이러한 첫 번째 결론으로 논의를 끝내기에는 다소 미진한 감이 없지 않다. 왜냐하면 ‘필사자의 의도적 개작’은 지금까지의 <구운몽> 텍스트 연구에서 논의의 주제로 전제되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행 연구의 관점에서는 본고의 첫 번째 결론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필사 과정에서 의도적 개작이 없었을 경우를 가정한 다음, 이 경우 원본 재구의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본고에서 다루어 둘 만한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본고가 첫 번째 결론만으로 논의를 끝낼 경우, 이유야 어찌되었든 ‘필사자에 의한 의도적 개작’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연구자에 의해 <구운몽> 원본 재구를 시도하려는 후속 연구가 앞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다음 장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만에 하나 의도적 개작이 없었을 경우 <구운몽>

의 이본 중 어떤 이본이 원본에 가장 가까운지 판정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답해보고자 한다.

4. A·B 두 계열 이본의 비교

필사자에 의한 의도적 개작이 없었을 경우, 부세의 논의를 수용할 수 있다.⁸⁾ 부세의 그리고 부세의 논의를 받아들인 후속 연구로는 지연숙과 정길수의 논문이 있다. 두 연구 모두 “노존B본과 서울대본이 동일한 계열이며, (...) <구운몽> 이본에는 노존A본 계열과 노존B본 계열이라는 두 가지 계열이 존재한다.”⁹⁾고 했다. 즉 부세처럼 A계열과 B계열은 국문본을 매개로 연결되어 있는 독립적인 이본 계열로 본다. 다만 지연숙의 논문은 B계열에 속하는 서울대본을 원본에 가장 가까운 이본으로 보았고, 정길수의 논문은 B계열에 속하는 B본을 원본에 가장 가까운 이본으로 본 점만 다르다.

요컨대 B계열은 원본 직계의 이본들인 반면 A계열은 그렇지 않다는 데에서는 두 연구가 일치한다. 따라서 <구운몽> 원본을 연구하려면 A·B 두 계열 중 B계열을 텍스트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연숙의 논문에서 B계열을 원본 계열로 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① B계열의 장회 구분이 더 잘 되어있다.
- ② B계열의 삽입시가 A계열의 삽입시보다 품격이 높다.
- ③ B계열에는 섬세한 고유어 표현이 존재한다.
- ④ B계열의 서사가 더 정합적이다.
- ⑤ B계열의 전고나 일반상식이 정확하다.

위에서 든 다섯 가지 근거들은 모두 사실이라고 생각된다. B계열의 이본은 장회 구분이 더 잘 되어있고, 삽입시도 품격이 높아 보이며, 서울대본에

8) 부세의 견해와 입장을 달리하는 정규복의 견해는 부세와 지연숙, 정길수의 논문에서 비판된 바 있기에 상론하지 않는다.
 9) 지연숙, 앞의 글, 307쪽.

는 섬세한 한글 표현도 존재하고, 서사도 A계열에 어색한 부분이 자연스럽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전고나 일반상식도 정확한 편이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는 B계열을 원본 계열로 간주하고, A계열은 필사자에 의해 대폭 부연·개작된 이본 계열로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독립적인 두 계열의 이본이 존재할 때 사본학에서는 어떻게 원본 계열을 판정할까. 물론 경전을 대상으로 하는 사본학의 관점이 소설의 이본 연구에 수용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차피 이 장에서는 필사자에 의한 개작을 배제한 상태를 가정한 상태이니, 사본학의 관점이 도움이 되는지 시험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신약 성서 사본학에서는 사본들을 본문 유형에 따라 몇 개의 큰 유형으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도 고대 알렉산드리아 본문 유형과 서방 본문 유형 두 계열이 비교적 초기의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 <구운몽>에 A·B 두 계열의 이본이 존재하는 것과 흡사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신학 성서 사본학의 권위자인 메쯔거(B. M. Metzger)는 사본학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신약의 본문』(The Text of the New Testament)에서 이렇게 말한다. “(…) 일반적으로 고대 알렉산드리아 본문 유형과 서방 본문 유형의 일치에 의해 지지받는 해독 방법은 다른 어떤 해독 방법보다도 우수하다.(… generally the reading which is supported by a combination of Alexandrian and Western witnesses is superior to any other reading.)”¹⁰⁾

사본학에서는 두 유형 중에서 어느 쪽이 우수한지를 따지기 보다는, 두 유형 사이에서 일치하는 부분을 추려 원본에 있었던 내용을 추정하는 것이 더 확실하다고 본다. 이를 독립적인 본문 유형에 의한 ‘다중 증언(multiple attestation)’이라고 하며, 사본학의 기본적인 원리 중 하나라고 한다.

이 원리는 굳이 사본학을 참고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법정에서 서로 만난 적이 없는 두 명의 증인이 증언을 한다고 가정하자. 이때 두 증인 중 조리 있고 간명하게 말하는 사람의 증언을 택해야 하는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둘의 증언을 들어보고, 그 중에서 일치하는 부분을 먼저 채택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증언이 일치할

경우 우리는 두 사람이 ① 둘 다 사실을 말하거나, ② 둘 다 거짓을 말했는데 우연히 일치했다고 보아야 한다. ②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현실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①을 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 두 사람의 증언 중 불일치하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합리성을 따져 보아야 한다. 어느 한 쪽이 합리적인 말을 더 많이 한다고 해서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위 사본학 원리의 핵심은 어느 한 쪽을 부분적인 사례에 근거해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에 있다.

사본학의 관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살폈으니, 이제 <구운몽>에도 이러한 방법론이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겠다. 본고에서는 A·B 두 계열의 상동점과 상이점을 서사적 맥락과 <삼장시>를 살피는 방식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만에 하나 의도적 개작이 없었을 경우 <구운몽>의 이본 중 어떤 이본이 원본에 가까운지 판정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답해 보고자 한다.

4.1. 서사적 맥락

다음은 <구운몽>에서 적경홍에게 매파들이 시집을 권하는 대목이다.

A본

“매파가 고모(적경홍의 고모)에게 묻기를, ‘고모님은 동쪽으로 밀어내고 서쪽으로 막으며 사람들을 허락하지 않으니, 필시 어떤 남자라야 뜻에 맞겠습니까? 승상의 첩이 되려 합니까? 절도사의 부실이 되려 합니까? 명사에게 허락하려 합니까? 수재에게 보내지려 합니까?’ 경홍이 대신 답하여 말하기를, ‘만약 진나라 시절 동산에서 기생들을 이끌던 사안석이라면 가히 재상의 첩이 될 것이요, 만약 삼국 시절 남들로 하여금 곡을 틀리게 한 주공근이라면 가히 절도사의 첩이 될 것이요, 만약 당 현종 때 청평사를 바치던 한림학사 이태백 같은 명사라면 가히 명사를 따를 것이요, 만약 한무제 시절 봉황곡을 연주한 사마장경 같은 수재라면 가히 수재를 따를 것이요. 오직 마음에 맞는 대로 하

10) B. M. Metzger,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3rd ed., Oxford: New York, 1992, p.218.



리니 어찌 미리 헤아리리오.”¹¹⁾

서울대본

등 띠패 경홍드려 무르디, ‘고랑이 동으로 물니티시고 서로 병으리와다 아
모디도 허치 아니 하니 엇디허여야 고랑의 뜻의 마즈리오? 지상의 첩이 되고져
흐느냐? 명스를 좃고져 흐느냐? 절도스의 첩이 되고져 흐느냐? 슈지틀 좃고져
흐느냐?’ 경홍이 대답하디 ‘만일 진 시절의 너기를 잇그던 사안석 꺾트면 지
상의 첩이 될 거시오, 삼국 적 곡도틀 도라보던 슈공근 꺾트면 장슈의 첩이
될 거시오, 현종도의 취등의 청평스 드리던 니티빅 꺾트면 명스를 조출 거시
오, 한나라 녹기금으로 봉황곡 타던 스마상여 꺾트면 선비틀 조출 거시니 어
이 미리 정허리오?’

A본에서 매과들은 적경홍에게 ① 대승상 ② 절도사 ③ 명사 ④ 수재 중
누구를 고르겠냐고 한다. 서울대본에서는 이와 달리 ① 재상 ② 명사 ③ 절
도사 ④ 수재 순이다. 서울대본을 원본에 가깝다고 보는 관점에서라면, 이
처럼 사소한 서술상의 문제야 별 고민 없이 서울대본을 따를 가능성이 높
다. 그러나 적경홍의 대답을 보면 ① 재상 ② 장수 ③ 명사 ④ 수재 순서로
되어 있어 A본에 부합한다. 서울대본과 같은 계열인 B본을 보아도 ① 승상
② 절도사 ③ 명사의 순으로 되어 있어, 서울대본의 필사자가 순서를 바꾸
어 필사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B계열인 서울대본에서 변경이 일
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의 사례도 마찬가지이다.

A본

춘운이 말하기를,

“그 여관이 과연 남자가 맞는다면, 그 용모가 뛰어나게 아름다움이 이와 같

고, 그 기상이 호탕하고 시원함이 이와 같고, 그 음률에 정통함이 또한 이와
같으니, 그 재품이 높음을 가히 알 수 있습니다. 어찌 진짜 사마상여가 아닌
줄 알겠습니까?”

소저가 말하기를,

“그가 비록 사마상여라도 나는 결단코 탁문군이 되지 않으려다.”¹²⁾

서울대본

춘운 왈,

“이 사람이 남질작시면 얼굴이 임의 아름답고 기상이 호상하고 음률을 정
통하니 가히 그 지죄 엇디 아닌 줄을 알니로소이다.”

쇼제 왈,

“진짓 상에나 나는 결단허여 문군이 되디 아니허리라.”

A본에서 춘운의 말은 “어찌 진짜 사마상여가 아닌 줄 알겠습니까?”라는
문장으로 끝난다. 서울대본에는 그런 말이 없다. 서울대본을 원본에 가까운
이본이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이 부분도 A본의 필사자가 부연했다고 판단할
것이다. 그런데 서울대본과 같은 계열인 B본을 보면 춘운의 말 마지막 부분
에 “어찌 진짜 사마상여가 아닌 줄 알겠습니까?(此安知非眞司馬相如耶?)”라
는 문장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역시 서울대본의 필사자가 필사 도
중에 이 부분을 누락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A본이 부연된 것이
아니라 서울대본이 생략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B본도 서울대본과 마찬가지로 필사 과정에서 내용을 축약한 것으로 의
심되는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

A본

정생이 말하였다.

“조룡의 책임은 내 실로 달게 받을 것이나 지휘하여 일을 시킨 것은 따로

11) “媒婆問於姑娘曰, ‘姑娘東推西却, 不肯許人, 必得何許佳郎, 乃合於意乎, 欲以爲大丞相之妻乎, 欲以爲節度使之副室乎, □許於名士乎, 欲送於秀才乎.’ 驚鴻替對曰, ‘若如晉時, 東山携妓之謝安石, 則可以爲大宰相之妾矣, 若如三國時, 使人誤曲之周公瑾, 則可以爲節度使之妾矣, 有若玄宗朝獻清平詞之翰林學士, 則名士可隨矣, 有若武帝時奏鳳皇曲之司馬長卿, 則秀才可從矣, 惟意是適, 何可逆料乎.’” 『구운몽』 乾, 정병설 소장본, 28쪽.

12) 春雲曰, “其女冠, 果是男子, 則其容顏之秀美如此, 其氣像之豪爽如此, 其精通音律又如此, 可知其才品之高矣, 安知非眞相如乎?” 小姐曰, “彼雖相如, 我則決不作卓文君也.” 『구운몽』 乾, 위의 책, 39쪽.

사람이 있으니 어찌 소제만의 죄가 되겠는가?”

한림이 사도를 향하여 웃으면서 말하였다.

“참으로 그러하다면, 혹 악장께서 저를 위해 장난스런 일을 하셨는지요.”

사도가 말하였다.

“아닐세. 노부의 머리털은 이미 늙어 누래졌거늘 어찌 아이들의 장난을 하겠는가. 양량이 잘못 생각했도다.”¹³⁾

B본

정생이 말하였다.

“내 진실로 조롱하였소.”

정사도가 말하였다.

“내 머리털이 이미 누르렀으니 어찌 아이 적의 교활한 짓을 하겠나?”¹⁴⁾

위의 장면은 가춘운이 귀신으로 연기를 한 내력이 공개되어 양소유가 여러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고, 뒤이어 이 계획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내는 장면이다. A본을 보면 양소유의 추궁에 정생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회피하고, 이에 정사도를 돌아보자 정사도 역시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변명한다. 그런데 B본을 보면 정생이 스스로 조롱하였다고 자신의 책임임을 인정하는 듯 말하고, 정사도는 갑자기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해서 문맥이 매끄럽지 않다. 한편 서울대본을 보면 A본과 유사한 문맥으로 되어 있다.

서울대본

당성 왈,

“내 실노 조롱은 헛맞거니와 발종지시호든 그 사롬이 이시니 어이 다만 내

13) 鄭生曰, “操弄之責, 弟實甘心, 發蹤指示, 自有其人, 此豈獨爲少弟之罪哉.” 翰林向司徒而笑曰, “苟有是也, 或者岳丈爲小婿, 作遊戲事也?” 司徒曰, “否否. 老夫之髮已黃矣, 豈可作兒戲乎. 楊郎誤思也.” 『구운몽』 乾, 57쪽.

14) 鄭生曰, “吾誠有操戲也.” 司徒曰, “我頭髮已黃, 豈爲兒時狡獪之事乎?” 『구운몽』 노준B본, 『김만중문학연구』, 국학자료원, 1993 부록 영인자료 52~53쪽.

죄라 흐느뇨?”

양상이 스도를 향하여 날오디,

“원간 악당이 뉴의호시도다.”

스되 쇼왈,

“내 머리털이 임의 누르러시니 어이 아히 적 교사호 일을 흐리오?”

B본이 누락된 사례 역시 <구운몽> 전체에 걸쳐 적지 않게 나온다. 이러한 현상이 <구운몽> 전체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는 부분적인 실수가 아니라 필사자의 필사 경향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A계열 필사자는 원본의 문장을 빠짐없이 필사하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덧붙이기도 하는 경향의 사람이었던 반면에, B계열 필사자는 원본의 문장에서 번다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줄이고 핵심적인 줄거리 위주로 요약 정리하는 경향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서울대본과 B본의 내용에 결락이 있다는 것은 정길수의 선행 연구에서도 지적된 바로, “<구운몽> 원본에 가까운 모습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노준B본과 규장각본(=서울대본, 인용자)을 아울러 살피는 작업이 요청된다.”¹⁵⁾는 실로 적절한 지적을 했다. 그런데 그러나 이러한 지적을 함과 동시에 B본이 원본에 가장 가깝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논리적으로 진전되지 않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다시 강조하자면 원본이라는 기준이 없는 지금의 상태에서 어떤 이본이 원본에 가장 가까운지를 따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앞에서 부세가 말한, “원문(또는 정본)을 먼저 찾은 다음 다른 이본들과 대비’하는 방식의 텍스트 연구는 현실적으로 바라기 어렵다”는 지적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아무리 서사의 정합성이며 자구의 시시비비를 따진다 해도 어차피 B본과 서울대본의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100% 원본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느 한 계열이 원본이고 다른 계열은 아니라는 관점은 연구에 혼선을 초래할 뿐이다. B계열의 이본을 원본 계열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연구자들은 A계열에만 남아있는 <구운몽>의 원본 조각들도 개작이나 부연의 소

15) 정길수, 앞의 글, 13쪽.

산으로 의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4.2. <삼장시>

이 장에서는 A·B 두 계열의 차이점을 <삼장시>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삼장시>는 선행연구에서 B계열 이본이 원본 계열이라는 점을 뒷받침한 주요 근거 중 하나였다. <구운몽>의 양소유는 과거길에 낙양을 지나다가 가춘운이 있는 술자리에서 <삼장시>를 지어 시재로써 가춘운과 인연을 맺게 된다. 이 <삼장시>에 대해 지연숙은 A계열의 삼장시가 B계열의 삼장시보다 문학적으로 수준이 낮기 때문에 B계열의 <삼장시>가 서포의 원본이라고 판단했고, 정길수는 서울대본에 A계열의 <삼장시>가 한 수 첨가되었으므로 서울대본은 B본보다 후대의 이본이라고 보았다. 두 의견 모두 일리가 있으나, 본고는 관점을 약간 달리해 <삼장시>가 과연 서포의 원본에서부터 있었던 것인지 의문을 제기해 보고자 한다.

우선 A계열과 B계열의 <삼장시>는 그 詩想이 크게 다르다. 그러므로 지연숙의 논문에서 A·B 두 계열의 시에 대해 그 품격을 비교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A·B 두 계열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삼입시 중에서 시의 내용이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삼장시>가 유일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구운몽>에는 여러 편의 시가 있는데, A·B 두 계열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시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시 마지막의 숫자는 해당 이본의 페이지 수를 의미하며, 글자가 다른 경우 굵게 표시하였다.

	A본	B본
양소유의 양류사	楊柳青如織 長條拂畫樓 願君勤 種 意 此樹最風流	楊柳青如織 長條拂畫樓 願君勤 栽 植 此樹最風流
진채봉의 양류사와 양소유의	樓頭種楊柳 擬繫郎馬住 如何折作鞭 催 向 章臺路 楊柳千萬絲 絲絲結心曲	樓頭種楊柳 擬繫郎馬住 如何折作鞭 催 下 章臺路 楊柳千萬絲 絲絲結心曲

답시	願作月下繩 好結春消息 ¹⁵	願作月下繩 係定春消息 ¹⁹
삼장시	楚客西遊路入秦 酒樓來醉洛陽春 月中丹桂誰先折 今代文章自有人 天津橋上柳花飛 珠箔重重映夕暉 側耳要聽歌一曲 錦筵休復舞羅衣	香塵欲起暮雲多 共待妙姬一曲歌 十二街頭春曉晚 楊花如雲奈愁何 花枝愁殺玉人粧 未發織歌氣已香 下蔡陽城渾不管 只恐難得鐵爲腸
	花枝羞殺玉人粧 未吐織歌口已香 待得樛塵飛盡後 洞房花燭賀新郎 ²⁴	旗亭暮雪按涼州 最是王郎得意秋 千古斯文元一脉 莫教前輩擅風流 ²⁶
	憐渠最得玉人親 步步相隨不暫捨 燭滅羅帷解帶時 使爾拋却象床 ⁴³	憐渠最得玉人親 步步相隨不暫捨 燭滅羅帷解帶時 終須拋擲床象 ⁴²
계수나무 앞 시구	仙厖吠雲外 知是楊郎來 ⁴⁷	仙猶雲外吠 倘是阮郎來 ⁴⁴
춘운(선녀역) 이별시와 양소유의 답시	相逢花滿天 相別花在地 春色如夢中 弱水杳千里	相逢花滿天 相別花在水 春光如夢中 流水杳千里
	天風吹玉珮 白雲何離披 巫山何夜雨 願濕襄王衣 ⁴⁸	天風吹玉珮 白雲何離離 巫山他夜雨 願濕襄王衣 ⁴⁵
춘운(귀신역) 이별시와 양소유의 답시	昔訪佳期躡彩雲 更將清酌酌荒墳 深誠未效恩先絕 不怨郎君怨鄭君 冷然風馭上神雲 莫道芳魂寄孤墳	昔訪佳期躡彩雲 更將清酌酌荒墳 深誠不效恩先絕 不怨郎君怨鄭君 ⁴⁹ 冷然風馭上神雲 莫道芳魂寄故墳
	園裡百花花底月 故人何處	園裡百花花底月

	不思君55	故人何處不思君50
친진루 벽시	雨過天津柳色新 風光宛似去年春 可憐玉節飯來地 不見當爐勸酒人62	雨過天津柳色新 風光宛似去年春 可憐駟馬飯來遲 不見當樓如玉人55
양한림의 부채시 2수와 진채봉의 답시	紈扇團團似明月 佳人玉手爭皎潔 五絃琴裏薰風多 出入懷裏無時歇	紈扇團團似明月 佳人玉手并皎潔 五絃琴裏薰風多 出入懷袖無時歇
	紈扇團團月一團 佳人玉手正相隨 無路遮却如花面 春色人間摠不知74	紈扇團團月一規 佳人玉手鎖相隨 無勞障却如花面 春色人間摠不知64
	紈扇團團如秋月團 憶曾樓上對羞顏 初知咫尺不相識 却悔教君仔細看76	紈扇團團如秋月團 憶曾樓上障羞顏 早知咫尺不相識 悔不從君仔細看65
	紫禁春光醉碧桃 何來好鳥語咬咬 樓頭御妓傳新曲 南國天華與鵲巢 春深宮掖百花繁 靈鵲飛來報喜言 銀漢作橋須努力 一時齊渡兩天孫	紫禁春光醉碧桃 何來好鳥語交交 樓頭御妓傳新曲 南國穠華與鵲巢 春深禁掖百花繁 靈鵲飛來報喜言 銀浦作橋須努力 一時齊渡兩天孫92
정경패, 난양공주, 진채봉, 가춘운의 칠보시	喜鵲查查繞紫宮 鳳仙花上起春風 安巢不待南飛去 三五星稀正在東	喜鵲查查繞紫宮 夭桃花上起春風 安巢不待南飛去 三五星稀正在東95
	報喜微誠祇自知 虞庭幸逐鳳凰儀	報喜微誠只自知 虞庭幸逐鳳來儀

	秦樓春色花千樹 三繞寧無借一枝	秦樓春色花千樹 三繞寧無借一枝96
--	--------------------	----------------------

B계열은 위의 시가 전부이나, A계열에는 삽입시가 몇 수 더 있다. 어쨌든 위의 시들을 보면 A·B 계열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삽입시는 그 글자에 일부 출입이 없지 않으나, 시의 경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앞에서 살핀 ‘다중 증언(multiple attestation)’의 원리에 따라 이러한 삽입시들은 A·B계열의 모본에도 있었던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런데 <삼장시>만은 A·B 두 계열의 차이가 커서 완전히 별개의 시가 되었다. 그 이유는 과연 선행연구의 설명대로 “A계열의 작자가 원래의 시를 다른 시로 대체한 것은 그만큼 자신의 시적 능력을 자부해서”¹⁶⁾일까. 그렇다면 다른 시들은 그대로 인용했으면서 왜 하필 <삼장시>만 개작을 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또 의심스러운 점은 <삼장시>가 삽입된 위치가 다르다는 점이다.

A본

양생이 종이를 자리 위에서 던지고 여러 서생들에게 말하였다.

“응당 여러 형들에게 가르침을 청해야 하나, 오늘 좌중에서는 계경이 시험관입니다. 글을 바칠 시각을 넘기지 않았을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즉시 시 쓴 종이를 계섬월에게 보내니, 그 시는 이러했다. <삼장시 삽입> 섬월이 잠깐 별빛 같은 눈을 굴러 훑어보고 박자에 맞춰 한 소리를 내 뱉으니, 맑은 노래가 절로 나와 가늘고 길게 이어지는가 하면, 마치 무언가 호소하는 듯도 하고, 학이 푸른 밭에서 우는 듯, 봉황이 붉은 언덕에서 우는 듯, 진나라 아쟁과 조나라 비파도 그 곡조를 잃은 듯하고, 만좌의 사람들은 모두 씻은 듯이 안색이 바뀌었다. 처음에는 여러 사람이 오만하게 양생을 보아 시를 짓도록 한 것이었는데(…) ¹⁷⁾

16) 지연숙, 앞의 책, 309쪽.

17) 楊生擲箋於席上，謂諸生曰，“宜先請教於諸兄，而今日座中，桂卿即考官也，納卷時刻，恐不及也。”即送其詩箋於桂娘，其詩曰，<삼장시 생략> 蟾月乍轉星眸，霎然看過，檀板一聲，清歌自發，翹如縷，咽如訥，鶴唳青田，鳳鳴丹丘，秦箏奪其聲，趙瑟失其曲，滿座皆洒然易容。初諸

B본

양생이 붓을 던지고 여러 서생에게 말하였다.

“실로 응당 여러 형의 가르침을 청해야 하나, 오늘 일은 계경이 시관이군요. 글을 바칠 시각이 지났을까 두렵소이다.”

그리고 시를 섬랑에게 보이니, 계섬월이 추파를 흘려 한 번 보고는 단판의 한 소리와 함께 맑은 노래를 불러 그 소리가 드높은 하늘에 올라 소리가 공중에 울려 퍼지니 진나라 아쟁과 조나라 비파도 소리를 빼앗긴 듯하니, 자리의 서생들은 모두 씻은 듯 낮빛이 변하였다. 시는 다음과 같았다. <삼장시 삼입> 여러 서생이 처음에는 양생의 나이가 적음을 보고 시를 못 지으리라 생각하여 권해 짓게 한 것이었는데(…)18)

A본과 B본을 비교해 보면, <삼장시>의 위치가 다를 수 있다. A본은 계섬월에게 시를 보낸 다음 <삼장시> 원문이 제시되고, 계섬월이 노래를 부르자 좌중이 놀란 것으로 서술된다. 그런데 B본은 계섬월에게 시를 보낸 다음 계섬월이 노래를 부르고, 좌중이 놀랐다는 서술이 먼저 나온 다음에 비로소 <삼장시> 원문이 제시된다. B본의 서술은 일단 시를 들은 좌중들이 놀라는 상황을 먼저 서술해 <삼장시>에 대한 독자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다음에 시의 원문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A본의 미미한 서술에 비해 문학적 기법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문학적 기법의 우열이 아니다. 핵심은 A·B 두 계열이 모본에서 분기되던 시점에 <삼장시>가 삽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있다.

일찍이 부세는 <사씨남정기>가 장회 구분도 없고, 삼입시도 없는 형태의 국문본이었음에 착안해 <구운몽>의 원본 역시 그러한 형태가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한 바 있다. 이는 추측에 불과하지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특히 <삼장시>는 두 계열의 다른 시들과 달리 시상이 판이하게 다르고 삼입 위치도 다르다는 점에서, 모본에는 ‘<삼장

시>를 지었다.’는 정도만 서술되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A계열과 B계열의 필사자들은 여기에 시의 원문이 없는 것이 어쩐지 유감스러웠던 듯하다. 특히 후반부 낙유원의 모임에 월왕이 계섬월을 불러 <삼장시>를 청해 듣고, ‘꽃가지가 미인의 단장을 부끄러워하니, 고운 노래를 내뿜기도 전에 기운이 이미 향기를 품었도다.(花枝羞殺玉人粧, 未吐纖歌口已香)’는 구절이 아름답다는 칭찬까지 했으니 더욱 이 부분을 보충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법하다. 그래서 월왕이 언급한 구절을 A계열은 세 번째 시의 첫 구절에, B계열은 두 번째 시의 첫 구절에 넣되 나머지는 필사자가 역량껏 지은 듯하다. 이렇게 볼 경우 다른 삼입시와 달리 유독 <삼장시>만 삼입 위치가 다르고 시의 내용이 판이한 점이 잘 설명된다. 요컨대 A계열과 B계열의 <삼장시>는 모본에는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삼장시>의 문학적 高下는 서포의 원본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지연숙과 정길수의 선행연구에서 주장한, 서울대본 또는 B본의 모본이 서포의 원본에 가깝다는 견해를 부정하는 논거이기도 하다. 서울대본과 B본에는 <삼장시>가 존재하므로, 두 이본의 모본은 A·B 계열이 분화되던 시기보다 위쪽으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만에 하나 의도적 개작이 없었을 경우’를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구운몽>의 이본 중 어떤 이본이 원본에 가까운지를 판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본고의 두 번째 결론이다.

본고의 두 번째 결론에도 불구하고 <구운몽>의 원본을 일부분이나마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B계열의 이본과 A계열의 이본을 모아 공통된 부분을 모본에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하되, 서로 다른 부분은 개별적으로 따져서 판단한다면 원본에 좀 더 가까운 내용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이 엄청난 노력을 들여 이루어진다고 해도, 결국 얻을 수 있는 것은 몇몇 단편적인 조각일 뿐이다. 가장 불행한 것은 연구자가 이와 같은 절차를 밟더라도, 그렇게 해서 얻어진 조각들이 서포의 원본 <구운몽>에 얼마나 근접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심지어 얻어진 조각들을 모아 재구한 모본의 상위에 또 다른 성격의 한문본이나 국문본이

人傲視楊生，許令作詩矣。『구운몽』乾, 24쪽.

18) 楊生投筆，顧謂諸人曰，“固宜請教於諸兄，而今日之事，卽桂卿詩官也。恐過納卷時刻。”示詩於蟾郎，蟾月流秋波一見，發清歌於短板一聲，聲徹九霄，餘響留空，秦箏趙琴奪其聲，座上洒然變色矣。詩曰，<삼장시 생략> 諸人初見楊生年少，謂不能作詩，勸而作之。『구운몽』B본, 26쪽.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현존하는 이본을 토대로 원본 <구운몽>의 저작 언어나 그 본모습이 무엇인지를 재구하는 작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발굴되지 않는 이상, 현존하는 이본을 토대로 무엇이 서포의 원본에 가까운지를 판정할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이제 <구운몽>의 원본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복수의 <구운몽>이 갖는 특색들에 대해서 살펴볼 때가 된 것이 아닌가 한다.

5. 맺음말

본고는 지금까지 <구운몽>의 여러 이본 중 원본에 가까운 이본을 찾는 작업이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 따져 보았다. 그 결과 <구운몽>의 여러 이본 중 어느 이본이 원본에 가까운지를 판정하는 작업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원본의 내용을 복원할 수 없고, 심지어 저작 언어가 무엇인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곧 <구운몽> 텍스트 연구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버드 대학의 중국문학 교수 Xiaofei Tian는 여러 종류의 현존하는 도연명의 시 이본들에 대해 논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내린 바 있다.

달리 말하면, 이른 시기의 어떤 이본도 다른 이본보다 특별하지 않으며, “산을 바라보는(望)” 도연명은 “산을 보는(見)” 도연명보다 더 진실하거나 역사적으로 입증될 수 없다. 아마도 제일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은, 우리에게 현재 원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원본과 작가를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나는 정해진 하나의 도연명으로 기타의 것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도연명을 제안하는 것이다.¹⁹⁾

<구운몽>도 마찬가지이다. 서포의 親筆手稿本에 버금가는 새 자료가

19) Xiaofei Tian, *Tao Yuanming & Manuscript Culture*, Univ. of Washington: Seattle, 2005, p.221. “In other words, no early variant has a more privileged position over the others, and the Tao Yuanming who “gazes(望)” at the mountains is neither more or less “genuine” nor more historically verifiable than the Tao Yuanming who “catches sight of (見)” the mountain. This is perhaps the most difficult thing to accept: we do not now and never will have access to the original version of the text and to the poet who chose one word or another. Instead of attempting to replace one definitive Tao Yuanming with another, I am proposing multiple Tao Yuannings.”

참고문헌

<구운몽> 서울대본, 『구운몽 한글본』, 고려서립, 1986 영인자료.
 <구운몽> 노존B본, 『김만중문학연구』, 국학자료원, 1993 부록 영인자료.
 <구운몽> 을사본, 정규복, 『구운몽 원전의 연구』 부록 영인자료.
 <구운몽> 을사본, 정병설 소장.

정규복, 『구운몽 원전의 연구』, 일지사, 1977.
 _____, 「구운몽 노존본의 이분화」, 『동방학지』 59, 연세대 국학연구원, 1988.
 _____, 「다니엘 부세의 「구운몽 저작언어 변증」 비판」, 『한국학보』 69, 1992.
 D. 부세, 「구운몽 저작언어 변증」, 『한국학보』 68, 1992.
 _____, 원문 비평의 방법론에 관한 소고, 『동방학지』 95, 1997.
 지연숙, 「<구운몽>의 텍스트」, 『장편소설과 여와전』, 보고사, 2003.
 정길수, 「<구운몽> 원전의 탐색」, 『고소설연구』 23, 2007.

조동일, 「구운몽과 금강경, 무엇이 문제인가」, 『김만중연구』, 새문사, 1983.
 신현우, 『사본학 이야기』, 웨스트민스터 출판부, 2005.
 B. M. Metzger,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3rd ed., Oxford: New York, 1992.
 Xiaofei Tian, *Tao Yuanming & Manuscript Culture*, Univ. of Washington: Seattle, 2005, p.221.

On the Possibility of searching the "original text" of
 <Guummong(九雲夢)>

Kim, Dong-wook

This essay has a doubtful point explained by other researchers who endlessly tried to find the "original text" of <Guunmong(九雲夢)>.

So far, we have a lot of studies on the text of <Guunmong>. All of them tried to distinguish the "original text" of <Guunmong>. However, <Guunmong> is not one of the sacred books, which people would not even change a letter of them. <Guunmong> is a novel, and anyone who transcribed it could have changed its text on purpose. Even if we suppose that there was no intentional change by transcription, it is still impossible to reconstruct the "original text" because both "A group" and "B group" texts have defective sentences, and it is believed that <Samjangsi(三章詩)> which was used as a proof was not on the "original text" from the start.

The conclusion of this research is that without Seopo(西浦)'s own handwriting text of <Guunmong>, any effort to find or reconstruct the "original text" of <Guunmong> based upon existing texts, is in vain.

Key words: <Guummong(九雲夢)>, Cloud dream of nine, Seopo

접수일자: 2010. 8. 30 심사기간: 2010. 8. 30~2010. 11. 20 게재결정: 2010. 11. 20
